

茶·花·魚·歌...보성군 '통합대축제' 연다

다향제·세계차박람회·서편제소리축제·철쭉문화행사 등 '5월의 웰니스 관광보성' 주제 1일부터 5일간 동시 개최

보성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5월을 사로잡을 '통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8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 통합대축제는 '5월의 웰니스 관광보성'을 주제로, 차(茶)·소리·철쭉·활어잡기·보성군민의 날 등 보성의 축제들을 동시에 개최한다. 4월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군민의 날 행사(5월1일) ▲보성다향대축제(5월 1~5일) ▲보성세계차박람회(5월 1~5일)

▲서편제 보성소리축제(5월 1~3일) ▲울포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5월 2~5일) ▲일림산 철쭉문화행사(5월 2~5일)를 동시다발로 열어 보성 전체가 하나의 축제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보성군은 지난 14일 차(茶)생산자단체와 차(茶)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제46회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등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이번 축제는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축제 기간 내내 매일 저녁 6시30분부터 명창과 7080가수, 아이돌, 트로트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특별공연이 밤의 보성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보성의 대표축제 '보성다향대축제'는 다신제, 찻잎 따기, 한국 명차선정대회, 학생 차(茶)예절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는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울포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은

매일 오후 2시 활어잡기 체험이 예정돼 있으며, 전국 최대 철쭉군락지 일림산에서는 붉은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보성군 관계자는 "5개 축제 일정을 통합하면서 축제 프로그램이 풍성해졌다"며 "5월 보성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초청했다. 한편, 보성다향대축제는 지난해 최단기 문제부 최우수축제로 승격됐으며, 올해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 2년간 국비 지원과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홍보 지원을 받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송귀근(가운데) 고흥군수, 김양숙(왼쪽) 한국철도 전남본부장, 이태호(오른쪽) 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이 지난 12일 고흥군청에서 '2020 고흥 방문의 해' 성공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 제공>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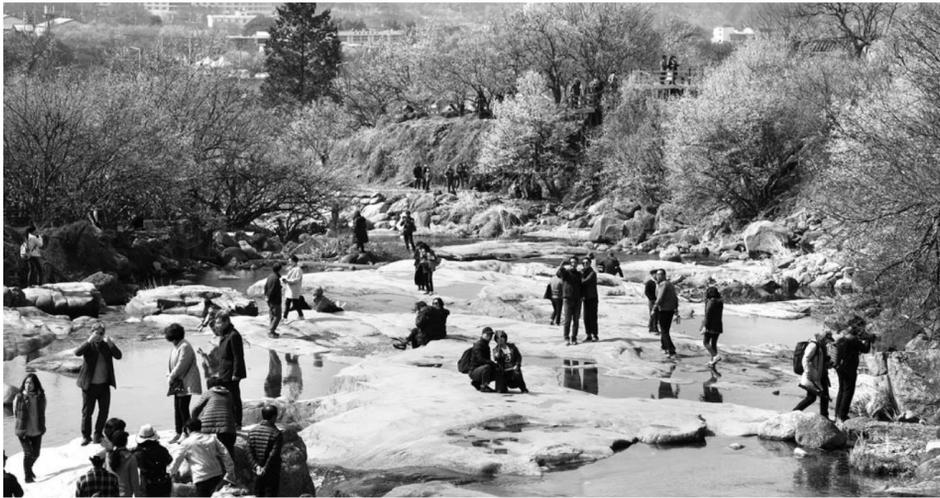
고흥군·한국철도·관광공사 '고흥 방문의 해' 성공 추진 협약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으로 오세요.” 고흥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한국철도 전남본부·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등 3개 기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MOU 체결은 2월 말 예정인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을 계기로 추진 중인 '2020 고흥 방문의 해' 성공 추진과 고흥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고흥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활성화 전략 추진, 고흥여행상품 개발 및 마케팅활동 공동 추진,

고흥 관광발전 도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3개 기관은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해 여행관계자 팸투어를 추진하고, 각 기관의 홍보 플랫폼을 통한 고흥 주요 관광지 공동 홍보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여행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달 말 개통 예정인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에 따른 고흥관광수요를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 한국철도의 모객 능력 및 관광공사의 관광 전문 지식과 마케팅 능력에 고흥군의 관광자원이 어우러지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 '산수유꽃축제' 예정대로 내달 14일 개막

'코로나19' 방역 철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구례군은 우리나라 대표 봄꽃축제인 '구례산수유꽃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구례산수유꽃축제 모습. <구례군 제공>

구례군이 우리나라 대표 봄꽃축제인 산수유꽃축제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다만 확산 우려가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구례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위기를 맞았던 대표 봄꽃축제인 '제21회 구례산수유꽃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례산수유꽃축제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결정은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축제추진위원회는 방역조치를 충분히 마련한 후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산수유꽃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 다만, 호흡기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개막식과 축하공연 등은 하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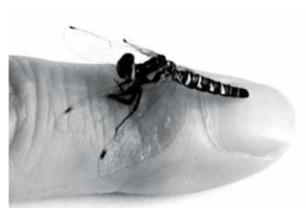
축제추진위 관계자는 “산수유꽃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편

의시설 마련과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목논습지' 생태 복원... 꼬마잠자리 서식환경 개선

곡성군이 환경부로부터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 곡성읍 월봉제 목논습지 생태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매년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협력금을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공모 방식으로 선

정한다. 월봉제 목논습지는 국내 멸종위기종인 꼬마잠자리 출현지다. 생태적으로 보전과 보호가치가 높은 곳이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로 수변 식생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꼬마잠자리(사진) 서식처로서의 생태적 기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 사업으로 곡성군은 탄소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우수한 생태숲을 조성하고,

꼬마잠자리와 물방개의 서식환경을 개선·복원한다. 이를 통해 목논습지를 섬진강 침실습지, 기차마을 곤충생태관과 연계한 숲 생태 체험학습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습지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관찰원, 수서곤충원 등을 조성해 목논습지를 자연 생태의 중요성을 알리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고흥군, 공직비리 근절... 청렴조직 문화 정착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도입

고흥군은 공직비리신고 활성화 및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 <포스터>을 도입,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취약했던 보안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IP 추적 방지 및 내용 암호화 기법 등 최신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게 된다. 제보 방법은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스마트폰 앱(고흥군청 헬프라인), QR코드를 통해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내부공무원,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금품수수 ▲부패행위 ▲부당지시 ▲갑질 ▲성희롱 등 관행적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고흥군 발전을 위한 개선의견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서는 실시간 운영혁신담당자에게 전송되며, 신고자는 신고패 부여받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고흥군을 만듭니다.



신고대상 갑질, 부패행위, 부당지시, 인권침해, 성희롱, 개선 건의 등

은 고유번호(6자리)를 통해 재접속, 익명 상태에서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익명 신고센터 '레드 휘슬' 개설로 신고문화의 인식 변화와 청렴 조직문화가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